

짐 스피겔 박사, 종교철학, 세션 8, 개혁된 인식론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8, 개혁된 인식론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신에 대한 믿음의 합리적 정당화와 유신론에 대한 주장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교적 믿음의 합리성 문제에 대한 약간 다른 접근 방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20세기 학문과 종교 철학의 역사에서 실제로 큰
방향 전환을 구성했으며, 그것은 개혁 인식론입니다. 이 접근 방식의 주요
지지자는 앨빈 플랜팅가입니다. 그럼, 플랜팅가로 이어지는 약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강의에서 우리는 논리 실증주의로 알려진 사상 학파를 언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모리츠 쉐LIK과 같은 사람들이 이끌었고, 그는 철학
역사상 가장 못생긴 이름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학파는 1917년, 191
8년 십 대에 비엔나 학파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철학을 다시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19세기에는 많은 허황된 형태의 형이상학적 관념론이 있었고, 20세기
초에도 많은 학자들이 여전히 옹호했고, 비엔나 학파의 철학자들과 그들과
같은 다른 학자들은 철학을 보다 과학적인 종류의 검증 가능하고, 존경할
만하고, 실용적인 종류의 기초로 끌어내리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검증 원리라는 것을 고안해냈습니다. 모든 진술이나 믿음은
경험적 확인이나 시험을 통해 검증 가능해야 하며, 과학적으로 검증되거나
경험적으로 증명되거나 확인될 수 없는 것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알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증주의자들이 이 접근
방식을 발전시키면서 점점 더 영향력이 커졌고, 물론 실증주의의 많은

불행한 의미 중 하나는 도덕성과 아름다움, 신, 인간의 영혼에 대한 믿음이 인지적 가치 없이 완전히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실증주의의 고유한 문제점을 적절히 강조하여 이 관점을 마침내 기각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실증주의 사상은 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를 얻었고, 서구, 유럽, 미국 등 여러 세대의 대학생들이 이 관점인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증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실증주의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경험적으로 증명되거나 입증될 수 있을 때에만 합리적으로 존중받을 만하고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 원리 자체는 경험적으로 증명되거나 입증될 수 없습니다. 이 검증 원리는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체 테스트에 실패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반박되었습니다. 실증주의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실증주의를 인지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거부해야 하며, 실증주의는 그 자체의 기준에 따르면 인지적으로 의미 없는 명제라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실증주의적 사고방식과 지향은 매우 영향력이 있었고, 40, 50, 60년대에 많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은 그 후 모든 종류의 종교 주장, 특히 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 점점 더 회의적이 되었습니다.

무신론, 불가지론, 종교적 회의주의가 기본적 지향이 되었습니다. 50, 60, 70년대에 앤서니 플루가 무신론의 추정을 주장하면서 존경받는 종교 철학자들은 실증주의적 사고방식이나 지향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기본적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6년, 1966년 5월에 타임지 표지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신의 죽음에 대해, 표지에는 신은 죽었는가?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학자들과 실증주의 사이에서 무신론의 부상과 종교적

믿음의 쇠퇴에 대한 이야기와 플루의 영향력은 이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켈빈 대학의 학자의 겸손한 사무실에서, 그는 웨인 주립 대학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앨빈 플랜팅가는 이 문제를 다루는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에 대한 믿음을 합리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적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증거가 필요한가? 이 책은 결국 신과 다른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랜팅가의 결론은, 신을 믿는 데 엄격한 주장과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십 년에 걸쳐 이 논제를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90년대에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에서 출판된 The Warrant Trilogy라는 책 3부작과 2000년에 3권을 출간하여 개혁된 인식론으로 알려지게 된 전체 인식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된 인식론의 주요 주제를 개략적으로 설명할 것이고, 이것이 종교적 신념에 대한 사고방식과 신을 합리적으로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된 인식론자들은 플랜팅가를 포함하여, 우선 자연 신학은 별로 유용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주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아시다시피 전제적 변증 전통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수년 동안 이 요점을 제기해 왔으며, 인간의 죄가 신에 대한 증거에 의해 실제로 확신을 얻는 데 일종의 장애물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플랜팅가가 자연 신학이 특별히 유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유용성 측면에서 제한적이라고 강조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 신학의 전망에 대한 더 겸손한 견해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것은 괜찮습니다. 종교적 신자는 신에 대한 믿음을 뒷받침하거나 근거로 삼기 위해 증거적 정당화나 주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처음부터 신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앨빈 플랜팅가는 신에 대한 믿음이 실제로 적절하게 기본적인이라고

제안하고, 그것은 그의 개혁된 인식론의 중심 논제이며, 신에 대한 믿음이 적절하게 기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거기서 의미하는 바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이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신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종류의 용어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은 다른 믿음에 의존하거나 추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에 대한 그 믿음은 경험, 즉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진 특정한 경험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에 대한 믿음은 마구잡이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경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인지적 능력이 제대로 기능할 때 보장됩니다. 우리의 인지적 능력이 제대로 기능할 때 신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적절한 인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특정한 인지적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에 존 칼빈이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디비니타티스(divinitatis), 즉 신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각이나 인식.

하지만 죄가 정신과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불행히도 죄 때문에 유신론적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적어도 그 믿음이 손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죄 때문에 상실될 수 있는 적절한 인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특별한 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된 인식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죄와 신이 우리의 마음에 작용하여 신에 대한 적절한 인지적 지향을 갖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매우 강조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은 신에 대한 믿음 또는 신에 대한 믿음이 적절하게 기본적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적절하게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믿어야 할까요? 적절하게 기본적인 믿음은 다른 믿음에 근거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기본성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 다시 말하지만, 믿음이 무언가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에 대한 믿음, 특히 경험에 근거한 믿음에 근거하지만, 다른 믿음에서 근거하거나 추론할 필요가 없거나 적어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플랜팅가는 이러한 전체 방향을 고전적 기초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는데, 고전적 기초주의는 인식론적 이론입니다. 지식에 대한 이론, 사람의 지성적 구조나 신념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는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지성적 구조에서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입니다. 따라서 고전적 기초주의는 먼저 신념에 대한 기초가 있으며 그 기초는 기본 신념, 다른 신념에 근거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신념으로 구성되며, 모든 비기본적 신념은 궁극적으로 기초적 신념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일종의 일반적 기초주의이며, 다른 믿음을 유발하거나 추론하는 기본 신념이 있다는 생각, 다른 믿음에 기반하지 않은 특정 신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기초주의자는 그렇게 긍정할 것이지만, 고전적 기초주의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게 기본적인거나 기초적인 신념은 다음 특성 중 하나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자명하거나 감각에 분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거나 고칠 수 없어서 거짓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적절하게 기본적인 믿음은 자명하고, 감각에 명백하거나, 교정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교정할 수 없는 믿음일 뿐이며, 이는 적절한 기본성에 대한 높은 요구이며, 플랜팅가가 비판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는 적절하게 기본적인 믿음은 이러한 특성 중 하나를 가져야 한다는 세 번째 요점을 거부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적절하게 기본적인 믿음은 자명하고, 감각에 명백하거나, 교정할 수 없어야 한다는 이러한 견해를 고수한다면, 모든 종류의 믿음을 배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 사물이 우리가 보지 않을 때에도 지속된다고 말하는 믿음, 자신의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이 있다는 믿음, 세상이 5분 이상 존재해 왔다는 믿음을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이와 기억을 우리에게 심어 놓은 모습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요. 오늘 아침 제가 아침 식사를 했다는 믿음과 기억에 대한 믿음조차도 매우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친 짓이겠지만, 어떤 종류의 증거나 주장으로도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본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요점은 그것들이 기본적이지만 다른 믿음에서 추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플랜팅가가 우리가 적절한 기본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야 하며, 그것들이 교정 불가능하거나 항상 감각에 분명하거나 자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적 기초주의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그것이 적절한 기본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자기 반박 기준을 가지고 갑니다.

기본성에 대한 요구는 자명하지 않고 감각에 분명하지 않으며 논리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검증 원리와 논리적 실증주의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그는 고전적 기초주의를 비판한 최초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특정 인식론적 이론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사람은 그가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전적 기초주의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글썄요, 알다시피, 우리는 무엇이 제대로 된 기본 신념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훨씬 더 관대한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기본 신념을 허용하려면, 기본 기억 신념인 우리의 신념과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의 신념이 있는데, 이는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가장 좋은 주장은 비참할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에 대한 믿음도 포함해야 합니다. 신에 대한 믿음은, 아시다시피, 특히 그것들이 많은 인간 경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에 대한 믿음을 증거나 다른 믿음으로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할 지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에 대한 믿음과 신에 대한 믿음이 적절하게 기본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알다시피, 그것은 단순히 믿음, 신이 있다는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신이 나를 기뻐하신다, 신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는 신이 내가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또는 신이 내가 누군가를 상처입히는 어떤 말에 대해 불만스러워하신다, 신이 내가 한 일에 대해 불행해하거나 불쾌해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종류의 감정입니다.

그런 것들은 또한 적절하게 기본적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닌 다른 많은 기본적인 믿음과 평행합니다.

신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은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포함하여 감각 지각의 일반적인 신뢰성, 외부 세계의 존재, 인과율의 법칙, 자연의 균일성 및 다른 마음의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외부 세계의 존재를 그 목록에 넣은 이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글썬요, 제 감각에서 외부 세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나요? 글썬요, 사실 더 큰 가정은 제가 외부 세계를 알고 있다는 것, 또는 지금 깨어 있고 꿈을 꾸고 있지 않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기사인 중요한 가정을 하지 않고는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감각 지각의 일반적인 신뢰성에 관해 내리는 가정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과성과 자연의 균일성에

대한 믿음은 적절하게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마음의 존재에 관한 그 목록의 마지막 항목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정신이라면, 하루 종일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믿음, 생각,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믿고 믿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가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얼굴 뒤에 실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인체 내의 다른 마음과 세상 뒤에 있는 마음 사이의 유사점은 중요한 것, 그 비유, 그 유사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플랜팅가가 그의 책, 이 주제에 대해 쓴 첫 번째 책인 신과 다른 마음이라는 제목을 붙인 데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신은 우주 뒤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인간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절하게 기본적인 방식으로 믿는 것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유추적으로, 나는 우주 뒤에 마음이 있다고 믿고 적절하게 기본적인 방식으로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내 지적 권리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은 우리가 적절하게 기본적인 믿음을 갖는 또 다른 정신일 뿐이며, 우리가 마주치고 믿음을 갖는 다른 인간 정신과 어떤 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우주 전체 뒤에 있는 무한하고, 전지전능하고, 전능하고, 전능한 정신이기 때문에 독특하며, 특정 인간 신체에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플랜팅가와 다른 개혁주의 인식론자들에 따르면 신과 다른 정신에 관해서는 우리는 적절하게 기본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플랜팅가는 수십 년 동안 전면적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그의 아이디어에 대한 저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가 60년대에 처음으로 이 관점을 제안하고 70년대에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을 때 말입니다. 많은 저항과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그가 나무 뿌리에 도끼를 엮고 고전적 기초주의의 전제와 논리 실증주의의 잔여 효과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랜팅가의 개혁된 인식론에 대한 반대 의견 중 하나는 그의 접근 방식 전체가 적절하게 기본적인 믿음을 임의적으로 만들 것이고, 사람들은 기본적인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며, 무책임한 믿음에 대한 홍수문을 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플랜팅가는 적절한 기본성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더 나은 기준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그것을 제공할 증거 부담을 가져야 합니까? 그가 고전적 토대주의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그는 확실히 거기에 몇 가지 좋은 기준의 개발을 초대할 것이지만, 그것을 확립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글썄요, 믿음의 적절한 기본성에 관해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반대, 소위 위대한 호박 반대, 플랜팅가가 사용한 예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이 적절하게 기본적이라면, 위대한 호박과 같은 이상한 것들을 왜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피너츠 만화를 참조한 것입니다. 위대한 호박 인형이 와서 어린 소녀와 소년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만화 속 신화를 다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저 엉뚱한 믿음의 한 예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플랜팅가의 관점이 그런 미친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는 현명하고 적절하게, 특히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신에 대한 믿음과 큰 호박의 큰 차이점은 우리가 신을 믿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큰 호박,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 또는 신에 대한 믿음을 조롱하기 위해 제안된 수많은 아이디어를 믿는 자연스러운 경향은 없습니다.

우리는 *census divinitatis*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힘을 믿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전통과 다른 문화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그러한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인구의 90% 이상이 어떤 종류의 더 높은 힘을 믿고 항상 믿어 온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거대한 호박이나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과 같은 완전히 어처구니없는 존재를 문자 그대로 믿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랜팅가는 그러한 반대에 이렇게 대응하며, 오늘날까지도 개혁된 인식론은 매우 존중받고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식론적 지향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되고 격려적이며, 우리가 그 신념을 옹호할 수 있는 주장이 없더라도 신을 믿을 지적 권리가 완벽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신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벽하게 존중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8, 개혁된 인식론입니다.